

[헤럴드경제] 中 쑤저우에 녹색 코리아타운 세운다

中 쑤저우에 녹색 코리아타운 세운다

2010-08-18 09:46

중국 쑤저우(蘇州)에 ‘녹색 코리아타운’ 조성 공개 논의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.

한중 수교 18주년(8월 23일)을 맞아 쑤저우에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총면적 26만㎡의 ‘녹색 코리아타운’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(주)CKT가 한중 양국 경제계 주요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는 것.

(주)CKT는 한중 녹색기업의 동반발전에 토대 역할을 할 ‘쑤저우 코리아타운’ 건설을 포함해 한중 기업들의 녹색협력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2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‘한중 녹색기업의 동반상승’ 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.

(주)CKT와 칭화(靑華)대학 기업집단의 칭윈(靑雲)창투, 서울중국학중심(SCCS, 양필승)이 공동주최하는 이 세미나에는 송권 칭화대학기금 부이사장과 예동 칭윈창투 총재 등이 참석해 양국 간 녹색 산업의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핵심사업인 ‘한중녹색과기원’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또 SK 에너지, 포스코파워, 현대.기아자동차, LG 화학, CJ, 유니슨 등 한국의 대표적 녹색기업과 회계.컨설팅업체 KPMG의 경영진이 참석해 각사의 녹색사업 현황과 중국 진출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.

이번 세미나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녹색 코리아타운은 쑤저우
공업원구 웨이팅진에 대지면적 17 만 2 천 842 m², 총 면적 26 만 4 천 470 m²
규모로 추진되며 스마트그리드(지능형전력망), 신재생에너지, 녹색
주거-생활공간 등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는 복합 지구다.

코리아타운의 핵심시설이 될 ‘한중녹색과기원’은 한중 녹색기업의 기술
협력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, 한국과 중국 및 구미
녹색경영기업의 개별 연구개발(R&D 센터) 클러스터, 한중녹색창업센터,
전시관 및 녹색 미술관 등 3 부분으로 구성된다.

본부 역할을 하는 ‘본사(總部) 기지형 시설’에는 총 8 개동 건물에 한국
기업 5 개, 중국 기업 1 개, 다국적 기업 1 개, 한중 연합 연구기관 1 개 등
양국 녹색 대기업이 연구개발(R&D)과 상품의 현지화를 추진하는 공간이
구성된다.

헤럴드생생뉴스/online@heraldm.com